

국립광주과학관 올해도 프로그램 '다채'

자연색 주제 '각양각색 컬러나라' '광주 과학발명 페스티벌' '별빛학교'·'ICT 코딩' 등 진행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지난해 누적 관람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한 국립광주과학관은 2013년 개관 이후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강연, 축제 등을 펼쳐왔다. 올해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특별전이 준비됐다.

먼저 '각양각색 컬러나라' (4월 20일~7월 9일)를 통해 자연에 있는 '색'을 주제로 한 전시관람과 다양한 색채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놀이과학 특별전' (7월 28일~8월 27일) 프로그램에서는 놀이의 역사와 예술, 규칙에 대한 전시와 놀이체험도 즐길 수 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자동차 특별전'에서는 역사 속 자동차 이야기와 자동차의 구조, 미래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과학관 내 대부분의 행사는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 10월 중 열린다.

먼저 과학과 발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야외 체험 부스, 강연, 공연 등이 마련된 '2023 광주 과학발명 페스티벌'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행사는 과학관 전역에서 즐길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기간에는 '2023 가상기후 사진전'과 '사이언스 플라마켓', '음악이 있는 과학관' 행사 등이 마련돼 있다.

과학관은 이 외에도 세계우주주간 특별강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광주과학문화축제, 인공지능 동아리탐구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충족시킬 계획이다.

과학·공학·예술을 융합한 실험과 실습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일상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키우는 '과학영재융합탐구'와 기초 과학을 접목한 하드웨어 중심 로봇 교육 '로봇배움마

루',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험활동으로 배우는 '우주배움마루'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바이오랩', 남겨진 단서를 추적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CSI 과학수사대', 빛의 특징을 이해하고 광학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빛탐구실', 인체의 신비에 대해 공부하는 '메디+랩', 3D프린터로 나만의 디저트를 구워보는 '3D 창작실'을 통해 과학을 보다 재밌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과학관 최대 1.2M 반사망원경으로 천문학 이론과 별자리 해설, 천체관측 등을 진행하는 '별빛학교'와 천체망

원경을 직접 조립·조작해 자유롭게 전체를 관측하는 '밤하늘 관측대장'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놀이로 시작해 블록코딩까지 총 6단계로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는 'ICT 코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을 만들고 내가 만든 로봇을 코딩으로 움직여 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로봇에 코딩하는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과학관 일원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마다 비용은 상이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겨울방학, 환경·가족 캠프 참여하세요”



환경캠프 수질분석 실험



가족캠프 달탐사 코딩

국립광주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환경캠프와 가족 캠프를 진행한다.

환경캠프는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지정 프로그램 '내가 초록지구를 위협한다?'와 '플라스틱의 새로운 발견'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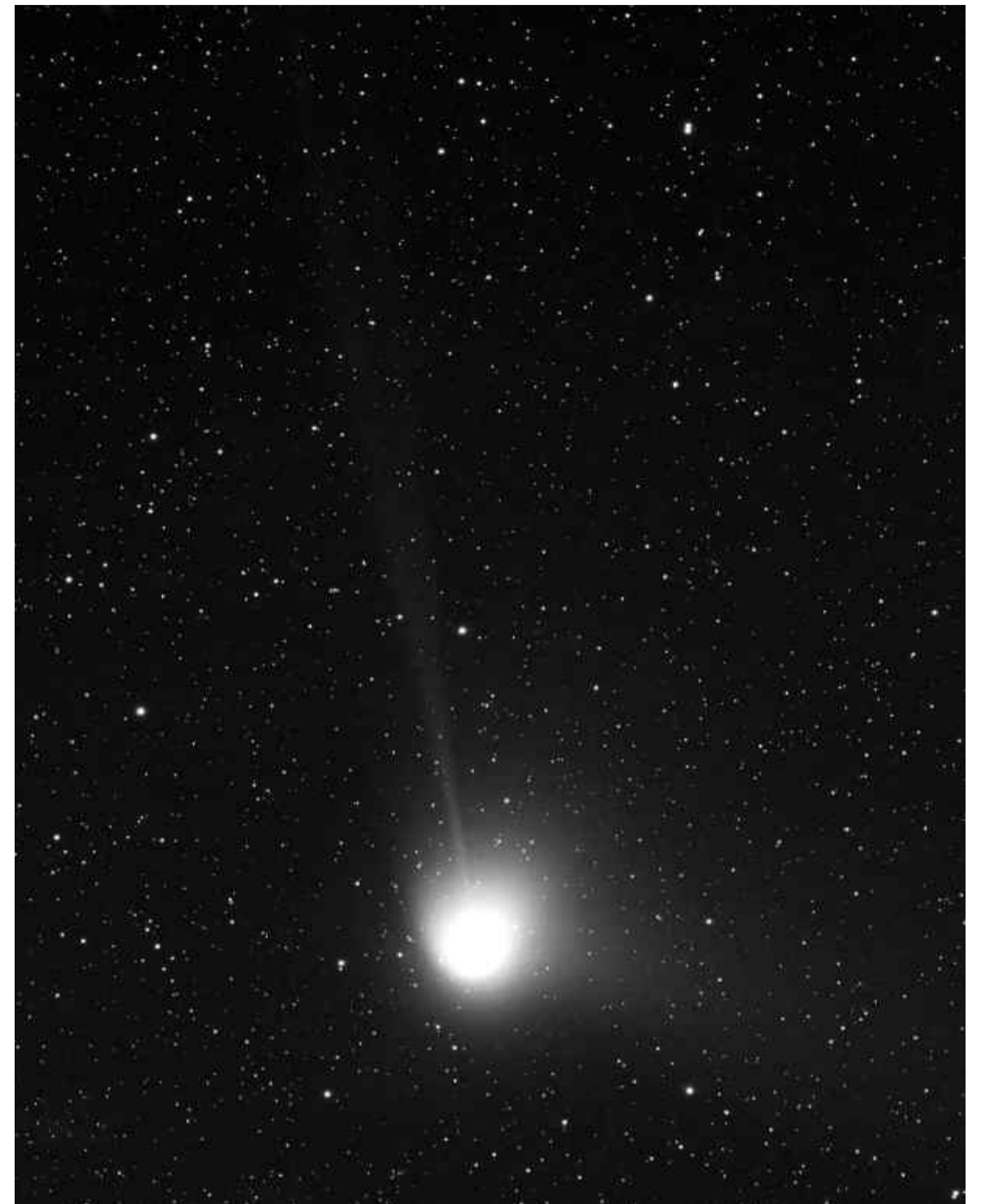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활동이며 초등학교 3~6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숙박형으로 진행되며 1기 (2월 8일~9일), 2기 (2월 15일~16일)로 운영된다. 신청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각각 2일과 9일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가족캠프는 과학관에서 하룻밤을 묵는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코딩으로 하는 달탐사', '날아라 에어로켓' 등 천문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별빛천문대의 1.2M 주망원경과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통해 겨울밤 하늘을 관측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2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포함된 2인에서 6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ZTF혜성' 5만년만에 다시 본다



5만여 년 만에 돌아온 ZTF혜성(C/2022 E3)이 2일 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거리 4200만km)을 지난다. 현재 태양에 가까워지며 태양풍의 영향으로 녹색빛을 띤 혜성 핵 앞뒤로 먼지꼬리와 이온꼬리가 발달하고 있다.

혜성 밝기는 5등급이며, 북극성과 북두칠성 사이에서 쌍안경 등으로 관측 가능하다. ZTF

혜성은 지난해 3월 초 미국 팔로마천문대 광역천체 관측장비(ZTF)에 처음 포착됐다.

지난 31일 새벽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별내리마을'에서 초점거리 400mm 굴절망원경을 사용해 120초씩 40여 분 촬영한 혜성 이미지를 픽스인사이트(Pixinsight) 프로그램 등으로 합성했다.

<아마추어 천체사진가 신성수(광산중교사) 씨 제공>

'우리는 왜 온라인 게임을 할까?'

GIST 최원일 교수, '프로테우스의 역설' 번역서 출간

'우리는 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온라인 게임을 할까?'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심리학의 관점으로 답을 제시한 번역서가 출간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출판사인 'GIST PRESS'는 30일 가상 세계와 온라인 게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 기제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서인 '프로테우스의 역설: 가상 세계와 온라인 게임의 심리학'이

발간했다고 밝혔다.

GIST 기초교육학부 최원일 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온라인 게이머들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을 해봤다면 겪어봤을 만한 상황을 제시하고 심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를 분석한다.

원서인 '프로테우스의 역설'(The Proteus Paradox)의 저자 닉 이(Nick Yee)는 가상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변화



최원일 교수

시키고 통제한다는 '프로테우스의 역설'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가상 세계에서의 자유와 권한 부여가 현실로부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관점이다.

최원일 교수는 "이 책이 가상 세계와 밀접하게 얽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현대인에게 가상 세계를 더욱 지혜롭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항공, 항우연 주관 한국형 GPS 개발 착수

센티미터 단위 위치정보 제공

대한항공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8일 항우연과 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사업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20년간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 1호, 다목적실용위성 3·5호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 구조계 개발 기술과 전문인력, 항공우주용 복합재 제작 조립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KPS는 2035년까지 정지궤도에 8기의 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주변 영역에 센티미터(cm) 단위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정밀·고신뢰성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시에는 미국의 상용 GPS와 호환되고, GPS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한반도 지역에 위성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다.

대한항공은 2025년 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후속 KPS 위성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